

##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7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 1. 다음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공모 -

아직도 연주회장에서 휴대 전화의 벨 소리가 울려 연주와 감상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 예술 회관에서는 연주회장 입구에 게시할 문구를 공모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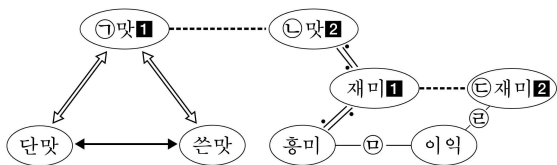
문구에는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하고,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하는 표현도 포함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나누는 대화는 이제 그만입니다. 연주회장에서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②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바쁜 일상일지라도 잠시 여유를 갖고 감상하는 음악이 더 아름답습니다.
- ③ 당황스러운 벨 소리보다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 음악이 더 소중한입니다. 잠시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 우리의 연주회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 ④ 마음을 울리는 선율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 음악의 감흥을 더 크게 자아냅니다.
- ⑤ 관객들은 벨 소리와 음악 소리의 부조화가 아니라 음악과 갈채의 조화를 즐기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관객 중의 한 사람입니다.

### 2.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맛 <명> 1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  
2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 다의 관계, ≡: 유의 관계, ↔: 반의 관계, ⇕: 상하 관계)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

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체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관계라면, ㉠의 표시는 ‘늑’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 3.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워, 명인이 된다고?

아 들: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 할 거지?

아 들: 그런데,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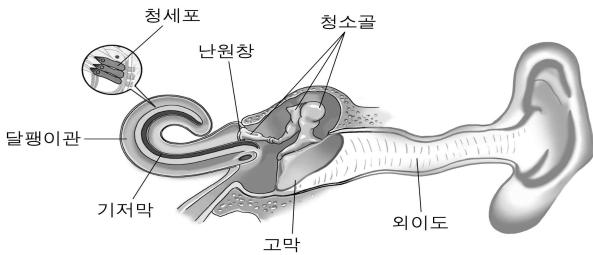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 $f_1$ 과  $f_2$ ,  $f_1 < f_2$ )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 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 $f_x = 2f_1 - f_2$ ,  $x =$  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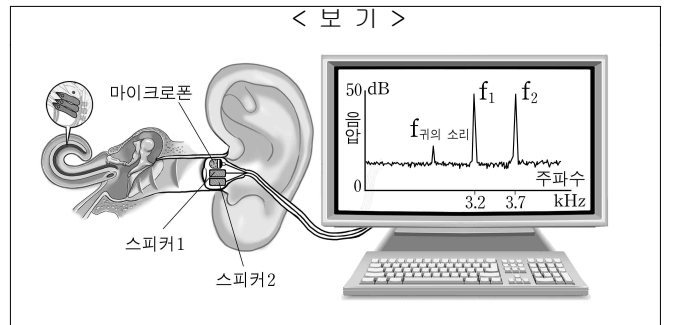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악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4.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5.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 kHz,  $f_2$ 가 3.7 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 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6.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② 일부러 안 듣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 ③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경우
- ④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 ⑤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을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달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굽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

7.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8.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ㄹ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9.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 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0.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수고하셨습니다.☺>